

오늘의 시대정신 강원도정신의 기본내용

김정철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주체혁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전면총돌격전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새로운 시대정신인 강원도정신이 창조되어 천만군민의 혁명열, 투쟁열을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사회주의강국건설을 위한 총돌격전에서 오늘의 시대정신인 강원도정신을 구현하여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해나가자면 강원도정신의 기본내용을 정확히 인식하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강원도정신은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반드시 풀어드리겠다는 충정의 마음입니다.》

백두에서 개척된 조선혁명은 언제나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조하고 그것을 힘있는 사상적무기로 하여 혁명의 양양기를 펼쳐놓곤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인민이 창조한 시대정신들은 그 견인력과 생활력으로 하여 혁명승리의 위력한 추동력이 되었으며 위대한 사상의 힘에 떠받들리어 조선혁명은 단 한걸음의 퇴보나 좌절을 모르고 승리적으로 전진할수 있었다.

천리마정신은 우리 인민이 전후 재더미를 헤치고 사회주의공업국가를 일떠세우게 하였으며 것처럼 어려웠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에 창조된 혁명적군인정신은 우리 인민을 그 어떤 고난과 시련앞에서도 굴할줄 모르는 불굴의 투사들로 키워 락원의 행군길을 열어나가도록 하는데서 무한대한 힘을 발휘하였다.

시대는 끊임없이 전진하며 발전하는 시대와 더불어 새로운 시대정신을 창조하고 그것을 구현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방식으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념원과 유훈을 모든 사업과 실천의 절대적인 기준으로 간직하고 그 관철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는것은 오늘 우리 군대와 인민이 지니고 높이 발휘해나가야 할 사상정신적품모이다.

강원도인민들은 바로 시대가 요구하는 사상정신적품모를 높이 발휘해나가는 과정에 온 나라 인민들이 따라배워야 할 새로운 시대정신인 강원도정신을 창조하였다.

강원도정신의 본질은 한마디로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반드시 풀어드리겠다는 충정의 마음이다. 다시말하여 모진 시련속에서도 백절불굴의 의지로 펼쳐일어나 자기 힘을 키우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해나가려는 정신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을 반드시 풀어드리겠다는 고결한 충정의 마음인 강원도정신은 수령의 유훈, 당의 로선과 정책을 무조건 관철하는 결사관철의 정신,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자력자강의 정신, 모진 시련과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굴함없는 공격정신을 본질적내용으로 하고있다.

강원도정신은 무엇보다먼저 수령의 유훈,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서라면 목숨도 서슴없이 내대며 끝까지 관철하는 결사관철의 정신이다.

천리마정신은 전후시기 사대와 외세의존, 수정주의와 보수주의, 기술신비주의를 불사르고 당중앙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사수하려는 우리 인민의 신념과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하는 우리 혁명실천의 요구를 반영하여 나온 시대정신으로서 우리 인민을 오직 당과 수령만을 믿고따르는 참된 혁명가들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사들로 키워 사회주의건설에서 세기적인 기적을 이룩하도록 하였다.

혁명적군인정신은 우리 조국의 가장 엄혹한 시련의 시기 위대한 장군님을 결사옹위하는 길에 운명도 미래도 있다는 우리 인민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의 발현인 수령결사옹위정신을 근본핵으로 하는 투철한 혁명정신인것으로 하여 위대한 선군시대를 대표하는 시대정신으로 될수 있었다.

강원도정신은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 끝까지 관철하여 사회주의강국을 기어이 일떠세우려는 우리 인민의 변함없는 충정의 마음을 근본핵으로 하는 시대정신이다.

강원도정신을 창조하는 과정은 곧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과 당정책은 그 어떤 시련과 난관속에서도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여야 한다는 결사관철의 정신력을 발휘해나가는 과정으로 일관되어있다.

강원도인민들은 원산군민발전소건설을 통하여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단 한치의 드림도 없이, 단 한결음의 양보도 없이 철저히 집행해나가는 자기들의 순결한 량심과 도덕의리심을 최대로 분출시켰다.

이 발전소건설이 강원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서 돌파구를 열어놓는 매우 의의가 큰 건설대상인것으로 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생전에 발전소건설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공사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시며 온갖 로고를 다 바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롭지어주시고 장군님의 크나큰 사랑과 체취가 뜨겁게 어려있는 원산군민발전소는 대단히 방대한 대상인것으로 하여 발전소건설전과정은 참으로 어렵고 시련에 찬 나날들이였다.

아직은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서 도자체의 힘으로 해내야 하는 방대한 건설이였지만 강원도인민들의 심장마다에 뜨겁게 맥박친것은 죽으나사나 무조건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끝까지 관철하여야 한다는 결사관철의 정신력이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는 길이기에 강원도인민들은 굴뚝기조건이 너무도 어려워 총길이의 10분의 1구간의 물길굴공사를 3년동안이나 하지 않으면 안되였지만 누구도 그 길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물길굴을 송도원쪽으로 돌리면 공사를 헐하게 할수도 있었으나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해주신 기본물길굴의 좌표를 변경시키는것으로 되며 하루에 백여만 m^3 의 물이 송도원앞 바다로 흘러들어 이 일대의 생태환경을 보호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도 관철할수 없는것으로 된다. 이것은 강원도인민들에게 추호도 양보할수 없는 문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한치의 드림도 없이, 한결음의 양보도 없이 끝까지 관철하려는것은 그들의 억척불변의 신념이고 의지였다. 이런 신념의 장벽을 쌓은 강원도인민들이기에 세계수력발전소건설력사에 있어본적이 없는언제에 물을 채운 상태에서 물길굴을

뚫는 기적도 창조할수 있었다.

강원도정신을 창조하는 과정은 수령의 유훈, 당정책관철에 펼쳐나선 전사는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를 실천으로 보여준 과정이었다.

수령의 유훈과 당정책관철은 강원도인민들의 모든 사고와 실천의 출발점으로, 절대적인 기준으로 되었다. 발전소건설에 펼쳐나선 강원도인민들의 비상한 각오와 열정은 그대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려는 고결한 충정심의 발현이었으며 이 한몸이 그대로 폭약이 되고 도화선이 되어서라도 물길굴을 뚫고 언제를 쌓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하루빨리 완공의 보고를 올리려는 의지의 분출이었다.

뜻밖의 봉락으로 굴속에 갇혀서도 작업을 중단하지 않았고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립시물막이구조물해체전투에도 서슴없이 뛰어들었다. 바로 강원도인민들이었다. 비록 가슴아픈 희생도 있었지만 그들은 순간의 주저나 동요, 비판을 몰랐다. 강원도인민들은 자기들이 위대한 장군님으로부터 전투명령을 받아안은 전사들이라는 드높은 자각,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지 못하면 이 땅우에서 살 권리가 없으며 목숨을 바쳐서라도 기어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믿음에 보답해야 한다는 결사관철의 정신을 지니고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수년세월 고결한 충정을 수놓아왔다.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들이 발휘한 불굴의 정신과 투쟁본때는 그대로 우리의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혁명전사의 값높은 삶은 바로 수령의 유훈을 심장에 쏙아박고 완강한 실천력으로 끝까지 관철하는 그 길에 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수령을 받들고 당을 따르는 길에 목숨도 아낌없이 바치는 강원도정신, 강원도인민들의 투쟁본때가 있어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해주신 좌표대로 기어이 물길굴을 완공하여 장군님의 체취가 그대로 어려있고 장군님의 애국념원, 강국념원이 깃든 발전소를 번듯하게 일떠세워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기쁨을 드릴수 있었다.

강원도정신은 다음으로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투철한 신념을 안고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자력자강의 정신이다.

자력갱생은 조선혁명의 영원한 전통이며 투쟁방식이다.

혁명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징표는 승리에 대한 신념을 간직하고 시련과 난관앞에서도 주저없이 모든것을 자체의 힘으로 맞받아나가는 불굴의 투쟁력을 지니고 발휘해나가는 자력자강의 정신력이다.

혁명은 수입할수도, 수출할수도 없으며 더우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대신 해줄수도 없다. 력사는 자기 힘을 믿고 펼쳐나선 사람은 막혔던 길도 뚫고나가지만 남의 힘을 믿고 외세에 의존하면 열려진 길로도 나갈수 없으며 혁명은 물론이고 자기 운명도 망치게 된다는것을 철의 진리로 새겨주고있다.

우리 혁명이 최악의 조건에서 최상의 승리를 이룩하며 기적과 비약의 한길을 걸어올수 있는것은 전적으로 자력자강의 기치를 높이 들고 투쟁하여온데 그 비결이 있다.

자력자강이야말로 우리 인민의 체질화된 투쟁방식이며 오늘의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우리가 믿을것은 오직 자기 힘밖에 없다는것을 바로 강원도인민들이 실천으로 증명하였다.

원산군민발전소건설을 통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이 또다시 새겨안게 되는 철의 진리는 바로 자력자강이야말로 모든 기적과 승리를 안아오는 원동력이며 이 길만이 주체조선이 나아갈 불변의 진로라는것이다.

강원도에서 일어나고있는 변혁은 수령의 유훈, 당정책을 자체의 힘으로 기어이 관철 하려는 강원도인민들의 자력자강의 정신이 안아온 결실이다.

오늘의 시대정신인 강원도정신은 결코 모든것이 풍족하고 조건과 환경이 좋은데서 창조된것이 아니다.

강원도정신은 모든것이 부족한 속에서 더우기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이 그 어느때보다 극심한 조건과 엄혹한 환경속에서 창조된 혁명정신인것으로 하여 그 전인력과 생활력이 더욱 강하다.

강원도인민들은 당에서 맡겨준 전투임무를 놓고 언제한번 흥정을 몰랐다. 아무리 방대하고 어려운 과업이라고 할지라도 그에 대하여 할수 있는가 할수 없는가를 따져보기 전에 그것을 자기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크나큰 믿음, 경애하는 원수님의 절대적인 믿음으로 받아안았다.

공업토대가 약하고 노동계급도 많지 못한 강원도가 자체의 힘으로 수만kW능력의 발전소를 자체의 힘으로 건설한다는것은 결코 조련치 않은 과제였다.

그러나 강원도인민들은 순간의 주저나 동요도 모르고 신심과 락관에 넘쳐 발전소건설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기존공식으로는 도저히 자체의 힘으로 하기 어렵고 방대한 발전소건설에서 기적을 창조할수 있는 요인은 바로 발전소건설이 단순한 수력구조물공사가 아니라 수령의 유훈을 관철하는 숭고한 사업이라는 고결한 충정심과 그 누가 우리를 잘살게 해줄수도 없으며 또 도와줄수도 없다는것, 우리의 행복은 오직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가꾸어야 한다는 자력자강의 정신이었다.

우리 당의 자강력제일주의를 신념으로 간직한 사람은 천리도 지척으로 보여 그 어떤 난관도 뚫고나갈수 있지만 자기 힘을 믿지 못하고 패배주의에 빠진 사람은 지척도 아득한 만리로 여겨져 난관과 시련앞에서 무릎을 꿇고마는 무맥한 존재가 된다는것이 강원도정신을 창조하는 과정에 강원도인민들이 새겨안은 고귀한 진리이다.

강원도인민들은 원산군민발전소의 물길굴뚝기공사를 도와주게 되어있던 인민군대가 보다 중요한 대상건설에 동원되었을 때에도 동요를 모르고 과감히 떨쳐일어났다.

나라의 경제사정으로 철강재보장이 어려워졌을 때에도 그들은 주저않은것이 아니라 자체로 강철공장의 생산능력을 확장하고 수만m의 각강을 생산하여 레루를 대신하였으며 총길이 수천m에 달하는 9개의 작업갱을 뚫고 수만여m의 기본물길굴을 완공하였다.

뿐만아니라 강원도인민들은 다른 건설장들에서 찾아볼수 없는 너멥돌격대를 조직하여 순수 마대전으로 1억 2천만 m^3 의 푸른 물이 출렁이는 대인공호수를 펼쳐놓았다.

만약 그들이 우에서 운수수단을 대줄것만 바라면서 기다렸다면 발전소언제는 그만큼 더디게 올라갔을것이며 오늘의 시대정신, 오늘의 투쟁기풍을 창조하지 못하였을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완공된 원산군민발전소를 찾으시고 이 발전소는 자력자강을 원동력으로 틀어쥐고나갈 때 못해낼 일이 없다는것을 다시금 실증해준 발전소라고 하시면서 자체의 힘으로 발전소를 기념비적창조물로 번듯하게 일떠세운 강원도인민들의 투쟁에 머리가 숙어진다고, 부강조국건설사에 빛나는 장을 아로새긴 강원도인민들의 위훈은 우리 당력사와 더불어 길이 전해가야 할 귀중한 재보라는 높은 평가를 주시였다.

믿을것은 오직 자기 힘밖에 없고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을 높이 발휘해나간

다면 무에서 유를 창조할수 있다는 정신력의 강자들인 강원도인민들은 자체의 힘으로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도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 한 기념비적창조물로 훌륭히 일떠세웠다.

강원도 12월6일소년단야영소는 야영각과 회관, 식당, 체육관, 야외관람석과 무대를 비롯하여 총 수십여개의 건축물과 부속시설물을 갖추고 바다가의 양상에 맞게 특색있게 건설된 강원도안의 학생소년들을 위한 과외교양기지이다. 특색있는 건축물의 웅장한 자태도 황홀하지만 만사람의 심금을 세차게 울리는것은 이 방대한 공사를 도자체의 힘으로, 하나에서 열까지 모든것을 도에서 생산한 자재와 설비를 가지고 최상의 수준에서 진행하였다는것이다.

강원도인민들은 건축물과 시설물건설에 필요한 강재, 건구류와 가구류, 타일은 물론이고 체육관과 야외관람석의 수지의자와 야외운동장의 인공잔디, 룡상주로의 고무 깔판에 이르기까지의 모든것을 도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으로 해결함으로써 우리 당의 자강력제일주의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하였다.

이처럼 강원도정신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투쟁기풍으로 투쟁해나갈 때 우리에게 점령 못할 요새도, 뚫지 못할 난관도 없다는것을 웅변으로 실증한 위대한 자력자강의 정신이다.

강원도정신은 다음으로 대담하고 통이 크게 목표를 내걸고 그 점령을 위해 모진 시련과 난관도 맞받아뚫고나가는 굴함없는 공격정신이다.

혁명은 세대와 세대를 걸쳐 오늘의 투쟁에서 래일의 투쟁으로 이어져나가는 장구한 과정이다. 이 땅우에서 일어나고있는 경이적인 승리를 보며 만세를 부르는것으로 만족해한다면 더 큰 승리를 이룩할수 없게 된다. 오늘의 승리에서 래일의 더 큰 승리를 확신하며 더욱더 박차를 가할 때만이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최후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오늘의 시대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계속혁명, 계속전진의 사상을 높이 받들어 승리에서 더 큰 승리를 안아오고 혁명의 변영기를 대변영기로 이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오늘의 승리를 래일의 더 큰 승리로 이어나가려는 굴함없는 공격정신은 기적과 승리를 안아오는 근본비결로 된다.

우리 당의 결심은 곧 실천이며 당의 부름이라면 천만산악도 단숨에 넘으려는 우리 인민의 투쟁기풍, 투쟁본때가 그대로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사상에 담겨져있다.

강원도에서는 최근년간 것처럼 방대한 발전소건설을 하면서도 지방공업발전과 농업생산, 국토관리를 비롯하여 모든 면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다. 이러한 성과들은 굴함없는 공격정신의 빛나는 결실이다.

강원도정신을 창조해나가는 과정은 바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 모진 시련을 맞받아뚫고나가는 굴함없는 공격정신의 발현과정이었다.

강원도정신에는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정신이 구현되어있다.

우리 당의 굴함없는 공격정신은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혁명의 전 력사적기간에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신 혁명정신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한평생 백두의 공격정신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과감히 뚫고 이 땅우에 자주, 자립, 자위로 빛나는 사회주의를 건설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력사의 모진 광풍과 제국주의련합세력의 포위속에서도 단 한치의 후퇴나 담보를 모르시고 오직 백두의 공격정신으로 우리 군대와 인민을 백승의 한길

로 이끌어오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적대세력들의 책동이 악랄해지고 조건과 환경이 엄혹하면 할수록 우리 군대와 인민을 당의 굴함없는 공격정신을 체현한 강자들로 키우시고 진두에서 천만군민을 백승의 공격전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계신다.

승리와 성과에 만족을 모르는 강한 일욕심, 혁명의 최후승리에 대한 확신에 넘쳐 대담하게 일판을 벌려나가는 전투적기백과 열정, 온갖 시련과 역경을 웃음으로 헤쳐나가는 혁명적락관주의, 바로 여기에 강원도정신의 비상한 견인력이 있다.

오늘 강원도정신은 우리 군대와 인민을 당과 수령에게 무한히 충직한 혁명가들로, 결사관철의 정신과 자력자강의 정신, 불굴의 공격정신을 체질화한 정신력의 강자들로 키우고 이르는 곳마다에서 기적과 위훈을 안아오는 비약의 원동력으로 되고있다.

천만군민을 사회주의강국건설에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강원도정신이 혁명대오에 맥박치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기에 사회주의강국건설위업은 반드시 실현될것이다.

실마리어 강원도정신, 원산군민발전소